

루터의 두 왕국론과 근대 주권국가에 대한 고찰

최형묵 (한신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신학적 교의로 재구성된 두 왕국론의 요체
- III. 두 왕국론의 정치사회적 함의
 - 1. 교회와 국가의 분리
 - 2. 교회와 국가의 병존과 협력
 - 3.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항
- IV. 두 왕국론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9.03>

• ABSTRACT •

A Study of Luther's Two Kingdoms and the Modern State

Choi, HyungMook(Hanshin University)

Luther's two kingdoms have been re-examined in a contemporary context of re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nation and are subject to continued research. Although the study of Luther's two kingdoms is actively conducted in the Korean theological community, its political-social implications are not sufficiently illuminat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two kingdoms in European society at the time of Luther. The atten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Luther is meaningful as an opportunity to break the medieval order characterized by the domination of the state by the Church. Luther's two kingdoms have certain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emergence of a kingship state seeking to escape the dominance of the Catholic Church as a manifestation of the split of the medieval order, and are deeply related to a series of flows that later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sovereign state in European political societies. By paying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the two Luther's two kingdoms in a particular historical aspect of Europe, it is possible to avoid both extremes of the unilateral rejection or follow-up of the two kingdoms. Thus, this study will find important clues in seeking appropriate attitud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to the state power and its method of governance in the theological-ethical dimension.

Key words: Church, Modern State, Reformation, State, Two Kingdoms

I. 들어가는 말

루터의 두 왕국론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현대적 맥락에서 재삼 주목되어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학적 차원에서 그 연구는 대개 규범적 정당화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두 왕국론이 내포하고 있는 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전적인 분리에 따른 상호 불간섭을 함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가 어떤 공통의 목적 구현을 위한 서로 다른 수단으로서 상호 관계되며 다만 그 역할과 기능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인지 하는 물음과 더불어 그 타당성을 규명하려는 방향에서 대개 논의되어 왔다. 나치의 통치체제에 독일교회가 사실상 투항했던 상황에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처음 재조명될 당시 그것은 주로 전자의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날에는 주로 후자의 측면에서 재검토되고 있으며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규범적 논거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이 개신교 사회윤리 형성에 중요한 하나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¹⁾ 그로부터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근거를 모색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신학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때 많은 경우 역사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그것이 갖는 의의가 면밀히 검토되기보다는 일종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서 두 왕국론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다.

이 글은 신학적 차원에서 루터의 두 왕국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사회적 의의가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1) 강원돈, “교의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42.

한국 신학계 현실에서 루터 당대의 유럽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의를 주목할 때, 그것은 교회에 의한 국가의 지배로 특징지어진 중세적 질서의 균열을 낸 하나의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은 그 중세적 질서의 균열의 한 양상으로서 가톨릭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왕권국가의 등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훗날 유럽 정치사회에서 주권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특수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자 루터의 두 왕국론이 그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두 왕국론에 대한 일방적 거부 또는 추종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신학적 사회윤리 차원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국가 권력과 그 통치방식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신학적 교의로 재구성된 두 왕국론의 요체

루터의 두 왕국론은 어떤 본격적인 교의학 체계의 한 주제로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 루터는 자신의 사상을 스스로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저작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저작들은 그때그때마다 논쟁적 상황에서 저술된 것이었다. 루터는 일생 동안 스물여섯 번에 걸쳐 크고 작은 대적들과 싸웠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였다.²⁾ 두 왕국론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그 개념에 대해서도 스스로 명명한 바 없었다. “두 왕국론의 미로”³⁾라고 할 만큼 그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는

2)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7.

3)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Philadelphia:

것도 그러한 사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두 왕국론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재조명된 루터 신학의 주요 주제이기는 하지만, 루터의 저작 가운데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단초는 이미 1515년 영적 질서와 세상 질서를 구분하였던 『로마서 강의』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1519년 『갈라디아서 강의』를 거쳐 이후 1520년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1521년 「멜란히톤에게 보낸 서신」, 1522년 설교 「공권력에 대한 순종」과 「두 편의 설교」, 그리고 『세속권력의 문제: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가?』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루터의 두 왕국론은 사실 오랜 신학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⁵⁾ 그것은 한편으로는 구약성서에서부터 등장하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역사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으로 형성된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의 영적 인간과 세속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이해와 인간이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의 도성』에서 집약되었고, 그것은 루터의 두 왕국론의 직접적인 사상적 배경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도성』에서 종말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역사를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대결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두 나라는 각기 고유한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 사랑

Fortress Press, 1984), 63;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25집 (2009), 121.

4) 정병식, “마틴 루터에 대한 윤리적 비판 재고찰: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제62호 (2012), 78 이하;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28.

5)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96;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24.

(Amor Dei)을 근거로 하며 세상의 나라는 자기 사랑(Amor Sui)을 근거로 한다.⁶⁾ 이렇게 각기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두 나라의 관계는 종말의 때에 최종적으로 세상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에 의해 극복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 최종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세상의 나라 역시 잠정적인 역할을 맡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상의 나라는 지상에 평화와 정의(pax et iustitia)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이해로부터 중세기에 세상의 칼과 영적인 칼, 즉 제국과 교회, 황제와 교황이 “하나의” 그리스도교 안에 병존한다는 이른바 두 개의 칼 이론(두 개의 권력이론)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두 권력, 즉 영적인 권력을 가진 교회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국가의 유착은 문제시되지 않았다.⁷⁾

루터의 두 왕국론은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왕국의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⁸⁾ 루터는 앞에서 말한 일련의 저작들을 통하여 세상의 나라 또는 불신자들의 세계를 “세상적 통치(Weltliches Regiment)”라 부르고, 하느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인 통치(Geistliches Regiment)”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통치(Regiment)”라는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도성(Civitas)”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루터의 두 왕국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왕국 개념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⁹⁾ 한편 루터는 하느님의 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립하는 사탄의 왕국을 구분하여 양자 사이에 어떤 혼합이

6) St. Augustinus, *The City of God*, 조호연·김종흡 옮김, 『하나님의 도성』(서울: CH북스, 2017) 제14권 28.

7)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97.

8)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29; 백용기, “마틴 루터 신학에 나타난 저항권 문제,” 『신학사상』 제97집(1997, 여름), 150.

9)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30.

나 연결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¹⁰⁾ 이 때문에 두 왕국론이 아니라 세 왕국론(즉 하느님의 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 - 세상의 왕국 - 사탄의 왕국)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¹¹⁾ 루터가 세 왕국의 개념을 사용하였고, 또한 “왕국”의 개념과 더불어 “정부”의 개념을 혼용하였기에 혼란이 이야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이중의 두 왕국론”¹²⁾의 논리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진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루터는 먼저 분리되고 대립되는 두 왕국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 때 대립되는 두 왕국은 하느님의 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또는 사탄의 왕국으로 표현된다.¹³⁾ 루터가 두 왕국 사이에 어떤 중립도 있을 수 없고, 서로 상반된다고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느님의 도성』에서 말했던 두 도성의 대립의 측면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나라는 전혀 다른 근거를 갖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지상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에 의해 극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루터가 두 정부를 언급하였을 때, 그 양자의 분리되고 대립되는 측면보다는 하나의 목적하에 분리되어 있으나 상호 관계되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루터는 『세속권력의 문제』에서 두 정부론을 본격적으로 개진하였는데, 그 양자를 하느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두 가지 통치방식으로 파악한 것이다.¹⁴⁾ 이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잠정적으로 인정된 세속국

10)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Dillenberger,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441-443.

11) 이양호, “루터 신학의 구조,” 『신학논단』 제24집(1996. 6), 134.

12) Heinrich Bornkamm, *Luther's Doctrines of the Two Kingdoms*. Trans. by H. Hertz(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16-19;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64;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42.

13)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261.

가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변주일 수 있다는 점에서, 루터가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의 도성의 논리구조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루터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으로서 두 정부를 말함으로써 세속 국가의 의의를 종말론적 지평에서 잠정적으로만 인정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리 현존하는 세계 안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두 왕국을 단지 영역[Reich]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영역과 동일한 집단 내의 기능[Regiment]에 주목함으로써¹⁴⁾ 인간사회의 실존적 정황 가운데서 적절한 윤리적 정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하느님은 이 세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통치하는데, 첫째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평화와 질서를 국가의 권력을 통해 수립하고, 둘째로 복음의 선포, 영과 믿음을 통해 인간들이 “영원한 하느님의 도성”에 모이게 한다. 여기서 하느님의 두 가지 통치방식은 완전히 분리된 두 “왕국(Reich)”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통치(Regiment)”의 두 가지 방식이 되며, 그 관계는 곧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상응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두 왕국론은 복음의 영역 밖에서도 하느님의 통치의 보편성을 확고히 하자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¹⁶⁾

여기서 두 왕국과 두 정부의 관계가 비로소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다. 투쟁의 교설로서 루터의 주장을 재구성할 때 여전히 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루터가 두 왕국의 대립을 말했다 때 그것은 종말론적 지평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며, 두 정부의 기능을 말했다 때 그것은 종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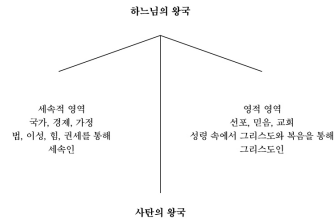
14)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443 이하.

15) Heinz-Horst Schrey,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Soziallehre*, 손규태 옮김, 『개신교 사회론 입문』(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88.

16) Heinz-Horst Schrey,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Soziallehre*, 76.

론적 성취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유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하나의 도표로 제시하고 있는데,¹⁷⁾ 그 요체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요컨대 루터의 두 왕국론은 두 정부론과 종합된 이중의 두 왕국론인 셈이며,¹⁸⁾ 그 요체는 하느님의 두 가지 통치 방식인 교회와 국가를 통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왕국에서 하느님의 왕국에 이르는 여정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재삼 확인하건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통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III. 두 왕국론의 정치사회적 함의

루터는 기본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이래의 전통적인 종말론적 전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의 한 발전 형태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보편적 지배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루터 역시 그 이상에 충실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루터는 그 이상을 단순히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정부론으로 구체화되는 두 왕국론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것이었다. 그것이 역사적 특수성을

17)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73;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44.

18)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44-145.

지냈다는 것은, 그것이 추상적인 신학적 교의체계 이전에 현실적으로 존재한 당대의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루터의 두 왕국론이 난해하게 보이는 까닭도 사실은 그 역사적 배경을 간과하고 일종의 순수한 신학적 교의로서만 접근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당대의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야기된 문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당대의 문제 상황 가운데서 루터가 의도했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루터의 두 왕국론이 당대 사회에서 갖는 정치사회적 의의를 주목하게 되면, 때로는 논리적 정합성을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루터의 주장이 의도하는 진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의 두 왕국론, 특히 두 정부론이 개진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의 국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국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둘째는 교회와 국가의 병존과 협력, 셋째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항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 하나하나의 국면을 살펴해보면서 루터의 두 왕국론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 교회와 국가의 분리

하느님의 통치가 영적 정부와 세속적 정부라는 두 정부에 의해 구현되고, 그 두 정부가 각기 복음과 율법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뜻한다. 그것은 교회에 의한 국가의 지배로 특징지어지는 중세적 질서의 종식, 곧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왕국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다.¹⁹⁾ 중세기 유럽사회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매

19)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181.

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교적 신정(Christendom)이라는 단일성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이 중세 유럽사회의 모든 정치사상과 행동의 근본 조건이 되었다.²⁰⁾ 두 정부론은 그러한 믿음에 따른 질서의 균열을 뜻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루터의 두 정부론은 한 신학자의 독창적인 신학적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일련의 정치적 시도와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주권국가 내지는 국민국가와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중세 후반기 기존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국가의 맹아들이 형성되는 일련의 흐름이 등장하면서²¹⁾ 로마교회의 보편적 세계지배를 거부하는 선구적 사상을 또한 형성되었다.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1275-1342)와 오컴(William of Ockham: 1285-1347)은 그 대표적 선구였다.²²⁾ 마르실리우스는 『평화의 수호자』에서 교회로부터 독립된 법치주의의 존재 이유를 주장하였다. 그는 강제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정의(定義)상 세속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강제적인 권력에 기반한 강제적인 재판권이나 관할권을 교황이 행사한다는 발상은 “무도한 악행”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의 평화를 해친다고 보았다.²³⁾ 오컴은 다소 온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지만, 그의 주장은 루터에게 직접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영혼의 관할권

20) Robert Jackson, *Sovereignty*, 옥동석 옮김, 『주권이란 무엇인가: 근대 국가의 기원과 진화』(서울: 21세기북스, 2016), 74.

21) Joseph R. Strayer, *On the Medieval Origins of the Modern State*, 중앙대학교사양중세사연구회 옮김, 『국가의 탄생: 근대국가의 중세적 기원』(서울: 학교방, 2012), 38 이하;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The Age of Reformation*, 박동천 옮김,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 종교개혁의 시대』(서울: 한국문화사, 2012), 147.

22)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26;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107 이하.

23) Marsiglio of Padua, *The Defender of Peace*, trans. Alan Gewirth(New York, 1956), 113, 344;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108.

과 세속적 관할권이라는 두 영역 사이에 엄격한 분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리스도가 교황을 우두머리로 세운 데에는 지상의 일 또는 세속적 사업에 대해 어떤 정규적인 관할권을 포함하는 의미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오컴은 “교황이 지상의 일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남의 농작물에 낫을 대는 짓”이라고 하며, 교황의 권위는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인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인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²⁴⁾

루터는 이와 같은 선구자들의 주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두 정부론은 자신의 상황에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교황청의 전횡이 심하였던 독일의 상황에서 95개조 격문을 발표한 이래 교황청과 대립하는 가운데 투쟁의 교설로서 루터의 구상은 구체화되고 이후 유럽사회에 전개된 개혁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²⁵⁾ 루터의 두 왕국론, 그리고 더욱 구체화된 두 정부론은 무엇보다 로마교회의 세속 통치를 부정하는 것을 뜻했으며, 교회의 세속 사회에 대한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을 뜻했다.²⁶⁾ 루터가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된 근본적 동기는 루터가 교회를 “신앙심있는 자의 모임(*congregatio fidelium*)”으로 인식한 데 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관할권으로부터 국가의 관할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²⁷⁾ 그러나 루터가 세속 사회에 대한 교회의 관할권을 부정했을 때 세속 사회는 독자적인

24) William of Ockham, *The Power of Emperors and Popes [De Imperatorum et Pontificum Potestate]*, ed. C. Kenneth Brampton(Oxford, 1927), 7;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110.

25) 황대현, 『중세·근대 초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서울: 민음인, 2011), 48 이하.

26)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54.

27)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58; Heinz-Horst Schrey,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Soziallehre*, 77.

자율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성애 근거한 정당한 통치방식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부터 교회와 국가간의 새로운 관계가 요청되게 되었다.

2. 교회와 국가의 병존과 협력

루터가 말한 두 왕국은 구별되어 있지만, 그것은 두 왕국이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두 왕국은 하느님의 주권이라는 동일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기능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또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양자의 관계는 특별히 루터가 하느님의 두 가지 통치방식으로서 두 정부를 말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적 정부는 하느님의 오른손 왕국(Reich Gottes zur Rechten 또는 mit der rechten Hand)으로서, 하느님이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는 구원의 영적 질서체제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적이고 비가시적인 정부로서, 인간의 외적 삶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안에서 하느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며, 인간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내면 가운데서 일한다. 반면에 세속 정부는 하느님의 왼손 왕국(das Reich mit der linken Hand)으로서, 하느님이 세상에서의 죄의 처벌과 외적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은 세속통치자들과 행정가들에게 위탁한 세속법과 검의 힘에 의해서 인간을 통치한다. 그러므로 세속정부는 힘에 의해 통치하는 외적 정부로서, 그 주된 기능은 세상에서의 법과 질서의 집행이다. 이것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외적 행위의 통제이다.²⁸⁾

28) 김선영, “그리스도는 세상왕국과 무관하다?: 루터의 두 왕국론 재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0호 (2015), 53.

두 정부는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영적 정부로서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강제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까닭에 그것을 주요 임무로 삼는 세속 정부로서 국가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세속 정부로서 국가는 영적 정부로서 교회가 공급해 주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과 하느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법과 질서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기에 그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영적 정부로서 교회를 필요로 한다.²⁹⁾

이러한 이유로 영적 정부로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역시 세속 정부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청받는다.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속 권위가 필요 없으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필요가 요청된다. 부연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정부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성령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기에 세속 법을 준수하고 세속권위에 순종하도록 외적으로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 그들은 세상왕국 안에서의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이미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힘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보호받고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세속 정부에 봉사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³⁰⁾ 그 필요성은 하느님의 제도를 유지시키며 악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뿐만 아니라, 나아가 평화를 돌보아야 하고 모두를 위해 법과 정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요청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세속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세속 정부를 돕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다고 보았다.³¹⁾

29)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139-140.

30) Martin Luther,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443.

교회와 국가의 병존과 협력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국가의 공공성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3.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저항

루터에게 교회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하느님의 통치방식으로서 각기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각기 그 고유한 목적에 충실하는 한 교회와 국가는 병존하며 협력할 수 있으며, 그 전제하에서 그리스도인 또는 시민은 두 정부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두 정부의 역할이 고유한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루터는 분명히 하였다. 사실 저항권의 문제는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 매우 미묘하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루터의 관련 저작 전반을 통해 볼 때 몇 가지 층위에서 저항권의 문제가 제기된다.³²⁾ 그 내용을 집약하자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세상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수동적이며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시민이기에 적법한 정부를 탈취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가 교황과 연합할 경우 적극적인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³³⁾

31) 위의 책, 448.

32) 백용기, “마틴 루터 신학에 나타난 저항권 문제,” 146-190; 정병식, “마틴 루터에 대한 윤리적 비판 재고찰,” 67-96.

33) Karl Müller, “Luthers Äußerungen über das Recht des bewaffneten Widerstandes gegen den Kaiser,” *SBAW. PPH*. (München, 1915); Johannes Heckel, “Widerstand gegen die Obrigkeit? Pflicht und Recht zum Widerstand bei Martin Luther”(1964), In Gunther Wolf (Hg.), *Luther und die Obrigkeit* (Darmstadt, 1972), 1-21; Martin Honecker, *Grundriß der Sozialethik* (Walter de Gruyter, 1995), 367-70.

첫째 교회 내에서의 저항권은 영적 정부로서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위반한 경우 교회당국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뜻한다. 이것은 루터 신학에서 저항권 문제를 다룰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종교개혁 자체가 교황이라는 영적 폭군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였던 두 왕국론의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입장이다.

둘째 세속 정부에 대한 저항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먼저 적법한 정부가 불의를 범할 경우, 그리스도인에게는 “수동적이며 고난을 견디는 저항”(passiver, leidender Widerstand)이 허용되며, 이것은 “말씀저항”(Wortwiderstand)에 해당한다. 신앙인은 부당한 명령을 따르서는 안 되며, 하느님께 기도하며, 형벌과 제재를 감내해야만 한다. 이것은 적법한 정부에서 통치자가 직위를 남용하는 경우(*tyrannus ex parte officii*)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찬탈자(*tyrannus ex defectu tituli*)가 적법한 통치자를 몰아내는 경우 신앙인은 적극적으로 찬탈자와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는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황제가 교황과 연합할 경우 황제와 교황에 대한 저항을 루터는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루터는 합법적 정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금지한 것과 달리 교황에 대한 저항의 의무를 역설하였다. 교황은 정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루터는 다니엘서를 인용하며 교황을 종말론적 폭군(*tyrannus universalis*)이요, 무법의 괴물(*Monstrum der Anomia*)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교황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연적 저항(*defensio naturalis*)이었다. 따라서 황제가 그 교황을 돕는다면 황제에게 저항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고 보았다. 그에 대한 저항은 무장저항, 나아가 국민봉기(*seditio, actio popularis*) 또한 가능하다고 보았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교황에 대항하여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두 왕국론이 형성된 만큼 그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저항의 권리를 인정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세속 국가에 대한 저항의 문제는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태도는 두 정부의 역할, 그리고 영적 정부로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세속 정부 안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루터가 두 정부를 말했을 때 하느님의 통치의 두 가지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영적 정부는 말씀과 사랑에 근거하는 적법한 통치를 구현하고 세속 정부는 율법과 이성에 근거하는 적법한 통치를 구현하는 몫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그에 속한 “시민”의 저항 형태 역시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각기 정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때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세속 정부가 적법한 통치로부터 벗어날 때 그에 상응하는 직접적 저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훗날 주권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IV. 두 왕국론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

서유럽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중세와 근세를 구별하는 결정적 분기점 가운데 하나는 주권국가의 탄생이라 할 것이다. 정치사상가 켄틴 스킨너(Quentin Skinner)는 서유럽의 근대 정치사상의 주된 특징으로 자유, 세속화, 국가이성, 주권 등의 요소를 주목하고 있는데,³⁴⁾ 그 요소들은 각기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 지니는 여러 측면들로서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흔히 근대적 인간의 특성으로서 이성을 지닌 자유로운

34)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7.

개인을 말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와 같은 근대적 인간의 탄생에 이르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주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마침내 주권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주권(主權, Sovereign)이란 “특정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 즉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권력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다른 주권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특정 지역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power)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위(Authority)를 말한다.³⁵⁾ 주권은 먼저 중세 유럽의 단일한 그리스도교 신정체제로부터 영역국가의 독립 시도와 함께 등장한다. 그 과정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또한 국가사회의 세속화 과정이기도 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 그 일련의 과정은 지속되었다. 결국 종교개혁이후 오랜 전쟁을 겪은 후 유럽사회가 베스트팔렌조약을 체결함으로써(1648년)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한 것이 주권국가 등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조약에서 종교의 자유를 각 국가에 맡긴 것이 이른바 주권국가의 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의 형성으로 주권국가의 형성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주권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이성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더불어 그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와 역할을 재조명하게 되는 데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근대적 인간 또한 탄생하였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근대적 정치혁명을 통해 이른바 주권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전화되었고, 그 가운데 만인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체고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개인의 탄생으로 귀결된 것이다.³⁶⁾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루터의 두 왕국론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35) Robert Jackson, *Sovereignty*, 4-5.

36)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II*, 17.

되었을까?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루터는 두 왕국론, 더 구체적으로는 두 정부론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분리를 바탕으로 하는 병존과 협력의 관계를 주장하였다. 루터의 그 주장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신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 데 그 의도가 있었다. 그 뚜렷한 의도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서 루터의 두 정부론이 함축하고 있는 저항권의 개념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학적 입장에서 저항권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수동적 복종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된다. 루터가 말한 두 왕국론의 가장 밑바탕에도 하느님의 통치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종교개혁운동이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로 발전하고 새로운 정치질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경로는 하느님의 통치 행위에 대한 수동적 복종의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형성된 역사와 같다.³⁷⁾ 어떤 상황에서 순종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저항해야 하는가, 또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저항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매우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안고 있다. 종교개혁가들과 근대의 정치사상가들은 당대의 상황 가운데서 그 물음을 발전시켰고, 그 물음의 결과는 근대 정치사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의무는, 모든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언명(로마서 13:1-7)에 따라 정당화되어 왔다. 루터가 특별히 세속 국가의 정당성과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역설했을 때 또한 바울의 그 언명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악행을 범하지 않아야 할 의무와 악행을 저지해야 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다. 여기서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무가 제기된다. 결국 순종과 저항의

37) 위의 책, 21.

관계는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하고 저항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된다.³⁸⁾ 루터는 당대의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그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고심하였다. 종종 루터에게서 저항의 권리에 대한 옹호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점차 루터에게 저항의 권리에 대한 강조는 뚜렷해졌고 그것은 이후의 종교개혁운동과 정치사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쳤다.³⁹⁾

특히 저항의 이념은 중세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출현한 공의회주의 정신과 결합되면서 근대 국가의 헌정주의 형성의 촉매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공의회주의는 12세기말에서 13세기 초까지 활약하였던 교회법 이론가 후구치오(Huguccio)에게서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후구치오는 교황이 이단에 빠질 경우 추기경들이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소집된 공의회가 교황의 오류를 심판할 재판정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마르실리우스 역시 공의회주의를 주장하였고, 이후 많은 개혁적 사상가들에게서 공의회주의는 계속 주창되었다.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의 저항의 개념이 이 공의회주의와 결합되면서 정치사회에서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헌정주의의 형성을 자극하였다.⁴¹⁾

물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에게서 제기된 저항의 개념, 그리고 이전의 선구자들로부터 이어지는 공의회주의가 근대의 세속적 주권국가의 “사회계약” 개념이나 이른바 “인민주권” 개념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38) 위의 책, 23-24.

39) 위의 책, 175-176.

40) Huguccio, *Unless Detected in Heresy* [*Nisi Defrehendatur a fide Devius*][Gloss on Decretal] in Brian Tierney, *Foundation of the Conciliar Theory* (Cambridge, 1955), 248-250.

41)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21.

신학의 전통에서 그것은 종교적 의무, 즉 하느님에 대한 순종의 의무에 근거한 것이었다. 루터와 그 선구자들, 그리고 이후의 계승자들이 처음부터 종교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세속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재차 확인컨대, 루터가 두 왕국론 내지는 두 정부론을 주장한 것은 우선적으로 신자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그 시도는 교회의 세속국가 지배라는 중세적 질서에 결정적인 균열을 냈고, 그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결과에 따라 결국 주권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근대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루터가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홉스(Thomas Hobbes), 장 보댕(Jean Bodin)과 더불어 중요한 근대 정치사상가로 평가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⁴²⁾

V. 나가는 말

이 글이 의도한 바는 루터의 두 왕국론의 전모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현실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근거를 곧바로 이끌어내는 데 있지 않다. 두 왕국론을 재검토할 때 그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만, 이 글이 의도한 바는 그에 앞서 두 왕국론이 루터 당대의 정치사회에서 갖는 의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훗날 어떤 정치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주목하는 데 있다. 그것은 루터가 당대의 어떤 문제에 대해 응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42) Robert Jackson, *Sovereignty*, 79;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297.

이는 매우 제한된 취지를 지닌 것으로, 서유럽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종교개혁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그 과정에서 제기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는 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의는, 루터의 두 왕국론이 제기된 시공간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신학적 교의로 설정하여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를 선택하는 신학적 논의의 혼선을 줄이는 데 있다. 두 왕국론이 제기된 시대적 맥락을 주목하고 그 효과를 유념한다면, 그 자체의 역사적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늘의 사회윤리적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루터의 두 왕국론의 의의를 재삼 확인하자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회의 세속국가 지배로 특징지어진 중세적 질서에 대한 이의제기와 실질적 저항운동이 지속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그것은 세속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세속국가의 통치방식과 그 나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을 뜻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국가의 정당성을 맹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통치의 목적을 상실할 때 저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통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사회적으로는 국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하였다.

이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회윤리적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단순히 루터의 주장을 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 역사적 의의를 주목하며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창의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창의적 해석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그 변화되는 조건 가운데서 하느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방향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돈. “교의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2009), 39-76.
- 김선영. “그리스도는 세상왕국과 무관하다?: 루터의 두 왕국론 재고.” 『한국교회사회학회지』 제40집(2015), 41-86.
-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회학회지』 제25집(2009), 121-155.
- 백용기. “마틴 루터 신학에 나타난 저항권 문제.” 『신학사상』 제97집(1997), 146-190.
-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_____.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이양호. “루터 신학의 구조.” 『신학논단』 제24집(1996. 6), 131-157.
- 정병식. “마틴 루터에 대한 윤리적 비판 재고찰: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제62권(2012) 67-96.
- 황대현. 『중세·근대 초 서양 기독교 세계는 왜 분열되었을까?』. 서울: 민음인, 2011.
- Augustinus. *The City of God*. 조호연·김종흡 옮김. 『하나님의 도성』. 서울: CH북스, 2017.
- Jackson, Robert. *Sovereignty*. 옥동석 옮김, 『주권이란 무엇인가: 근대 국가의 기원과 진화』. 서울: 21세기북스, 2016.
- Luther, Mart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Dillenberger. 이형기 옮김. 『루터 저작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3.
- Schrey, Heinz-Horst.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Soziallehre*. 손규태 옮김. 『개신교 사회론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Skinner, Quentin.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 The Age of Reformation*. 박동천 옮김.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 종교개혁의 시대』. 서울: 한국문화사, 2012.

- Strayer, Joseph R. *On the Medieval Origins of the Modern State*. 중앙대학교서양중세사연구회 옮김. 『국가의 탄생: 근대국가의 중세적 기원』. 서울: 학고방, 2012.
- Bornkamm, Heinrich. *Luther's Doctrines of the Two Kingdoms*. Trans. by H. Her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 Heckel, Johannes. "Widerstand gegen die Obrigkeit? Pflicht und Recht zum Widerstand bei Martin Luther"(1964), in Gunther Wolf (Hg.), *Luther und die Obrigkeit*. Darmstadt, 1972.
- Honecker, Martin. *Grundriß der Sozialethik*. Walter de Gruyter, 1995.
- Huguccio. *Unless Detected in Heresy [Nisi Defrehendatur a fide Devius]*[Gloss on Decretal] in Brian Tierney, *Foundation of the Conciliar Theory*. Cambridge, 1955.
- Marsiglio of Padua, *The Defender of Peace*, trans. Alan Gewirth. New York, 1956.
- Moltmann, Jürge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Müller, Karl. "Luthers Äußerungen über das Recht des bewaffneten Widerstandes gegen den Kaiser". *SBAW. PPH*. München, 1915.
- William of Ockham. *The Power of Emperors and Popes [De Imperatorum et Pontificum Potestate]*, ed. C. Kenneth Brampton. Oxford, 1927.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7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03일

• 국 문 초 록 •

루터의 두 왕국론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현대적 맥락에서 재삼 주목되어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신학적 차원에서 루터의 두 왕국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사회적 의의가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한국 신학계 현실에서 루터 당대의 유럽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의를 조명한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의를 주목할 때, 그것은 교회에 의한 국가의 지배로 특징지워진 중세적 질서의 균열을 낸 하나의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은 그 중세적 질서의 균열의 한 양상으로서 가톨릭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왕권국가 등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훗날 유럽 정치사회에서 주권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특수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자 루터의 두 왕국론이 그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두 왕국론에 대한 일방적 거부 또는 추종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신학적 사회윤리 차원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국가권력과 그 통치방식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교회, 국가, 근대국가, 두 왕국, 종교개혁
